

News

KB금융, 칼라일과 투자 역량 강화 '맞손'... 2,400억원 유치

머니S

투자기업 칼라일그룹이 KB금융그룹에 2,400억원을 투자...양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전략적인 MOU(양해각서) 체결
자사주를 활용해 발행하는 교환사채에 투자...칼라일은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KB금융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데 힘쓸 계획

코로나 가계빚, 2~3년간 유연하게 관리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가계대출에 대해 2~3년 시계 하에 유연하게 관리해나갈 예정" 또한 3차 추경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들과 주력산업·기업들, 그리고 금융시장이 이번 코로나발 충격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정부, 전세대출 옥죄자 은행권 수익성 '먹구름'

매일경제

6·17 대책은 은행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은행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1주택자가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는 게 핵심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 은행 건전성은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반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다시 옥죄면서 신용대출로 더 쏠리는 '풍선효과' 우려

은행 펀드 판매현황 매달 보고...내부통제 모범규준 곧 마련

연합뉴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기준을 조만간 마련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 작성 뒤 세부 내용 조율 중...상품 심의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까지 판매 전 과정 포함...

삼성 겨누는 거대여당...이번엔 '삼성생명법'

이데일리

박용진 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특정회사 지분 3%를 기준 '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1당당 천원에 삼성전자 샀던 삼성생명, 20조원 주식 팔아야...순환출자 지배구조 노려...금융감독통합법 이어 전방위 압박

GA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판매자에 배상책임 물어야

한국금융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중 하나로 보험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 포함...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손병두 "ELS 발행규모 조만간 확정...해외부동산 투자 모니터링 강화"

연합뉴스

"전체 ELS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한 뒤 방안을 조만간 마련...투자자 보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 환매나 재매각 어렵고, 주요국 부동산 경기 하강 리스크 있어 투자손실시 증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모펀드 환매 중단

연합뉴스

NH투자증권은 25·26호 펀드를 모두 217억원 판매...이외 환매 중단된 이 펀드들을 판 판매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NH투자증권, "운용사와 신탁은행을 통해 펀드의 실제 자산 편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펀드 명세서상 자산과 다른 자산이 편입돼 있음을 확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